

현역 교체, 전략 공천... 80여명 물갈이

한나라 공천심사기준안 확정... 지역구 196곳 개방형 국민경선 도입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현역 지역구 의원 25%를 공천에서 완전 배제하고, 지역구 공천은 개방형 국민경선(80%)과 전략공천(20%)을 혼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천기준안을 마련했다.

비대위는 여론조사를 토대로 하위 25%에 해당하는 현역의원을 공천 배제자로 분류기로 했다. 여기에 지역구 전략공천과 경선 탈락자 등의 요인을 합산하면 현역의원 물갈이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공천기준안은 부자·기득권·웰빙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걷어내고 새 정치를 위한 인적 진용을 갖춰 4·11총선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치신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개방형 국민경선=국민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전체 245개 지역구의 80%인 196곳에 대해 적용된다. 선거인단은 일반 국민 80%, 책임당원 20%의 비율로 선거구별로 구성기로 했다.

비대위는 여성 후보에게는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가산점은 본인의 득표수에 비례해 여성후보 중 신인과 전·현직 기초의원은 20%, 전·현직 비례대표 국회의원·당협위원장·광역의원은 10%의 수준이다.

경선에 현역이 나서면 신인과 1대1 양자구도를 만들고, 현역이 안 나시면 신인 2~3명의 다자구도를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전략공천=전체 지역구 중 20%인 49곳이 대상으로 분류됐다. 전략공천 지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강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강동갑, 양천갑, 성남 분당 등이 10여 곳이 거론되고 있다.

안정적인 당선이 가능한 영남권의 68개 선거구를 전략공천지로 겨냥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해당 의원들이 반발이 확실시된다.

◇현역의원 평가=당 소속 지역구 의원 144명 가운데 불출마를 선언한 8명을 제외한 136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통해 경쟁력(50%)과 교체지수(50%)를 평가하는 것이다. 비대위는 이 결과에 따라 하위 25%인 34명은 자동으로 공천에서 배제기로 했다.

◇도덕성 논란 인사는 공천 배제=비대위는 ▲세금포탈 및 탈루·금융

범죄는 그 시기와 무관하게 공천에서 배제기로 했다.

하지만, 범죄시기와 무관하게 공천에서 배제할 경우, 소급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비례대표 1/4은 국민이 공천=비례대표 후보는 비대위가 전략영입을 통해 75%를 공천하되, 국민배심위원을 구성해 25%를 공천하기로 했다. 국민배심위원단은 전문가 50인과 국

민·당원 공모 50인 등 100인으로 구성된다.

애초 비대위는 국민공모 등을 통해 선발된 2배수 후보를 상대로 국민배심위원단이 질의·응답, 소신발표 및 평가 등을 공개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신중하게 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아 의총을 통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희호 여사 만남 한명숙 대표 민주당통합 한명숙 신임대표가 16일 서울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을 찾아 이희호여사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남뉴스

박상천 불출마 초읽기

호남 다선 물갈이 신호탄되나 관심 집중

5선인 민주당 박상천(73) 의원의 4·11 총선 불출마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16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동료 의원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이 이번 총선에도 출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가족들의 반대가 심해 고민 중"이라며 "내가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우선 해결(통과)한 뒤 결정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물갈이는 유권자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다. (의원을) 오래 했다고 물갈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당 안팎에서 물갈이 대상으로 다선 의원을 꼽은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가족의 반대가 불출마를 고민하게 된 주된 이유라고 말하면서도 추후 당 안팎의 물갈이 여론을 지켜보면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시기의 문제일 뿐 호남의 다선·고령 의원들을 상대로 한 물갈이론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



에서 박 의원이 출마 쪽으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 당 안팎의 얘기다.

박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할 경우 다선·고령 의원 중 첫 불출마 선언이어서 호남 물갈이로 대표되는 인적 쇄신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광주·전남 의원 중 3선이 상은 박상천·김영진·김종조(이상 5선), 김성곤·유신호·이낙연·김효석(이상 3선) 의원 등 7명이다.

특히 민주당통합 새 지도부의 젊은 피들이 호남 물갈이론과 인적 쇄신 등을 말하면서 공천혁명을 하겠다고 강조해온 점을 감안하면, 박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곧 호남·다선 의원의 물갈이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국민경선에 현역 여론조사 평가안 검토

민주당 통합 총선 공천을 내주게 기준 마련

민주당통합이 한명숙 대표 체제로 재편되면서 4·11 총선 공천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대표의 취임 일성이 "총선 승리를 위한 공천 혁명"일 뿐 아니라 지도부에 입성한 최고위원 모두가 공천개혁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만큼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통합당은 우선 빠르면 이번주 내 총선기획단을 발족하고 이달 중 공천심사위원회를 꾸린다는 계획이다. 통합진보당으로부터 야권연대를 공식 제안받은 만큼 머뭇거리기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16일 현재까지 확정된 공천률은 '국민참여경선 70%와 전략공천 30%'를 적용한다는 정도. 하지만, 한

대표가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전략 공천을 최소화하고 완전국민경선으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공천 혁명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혀 전략공천 비율의 변화 여부가 관심사다.

또 일정상으로는 오는 3월2일까지 경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 아래 내달 21일 전국에서 동시 경선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쇄신의 폭과 기준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다. 이제 지도부가 활동을 막 시작한 만큼 한나라당의 공천혁신 작업을 보여 구체적인 공천률을 결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관심사는 현역 의원 평가 방법. 여

론조사를 통해 현역 의원들의 평가를 지수화해 하위 몇 %를 공천 탈락시키는 여러 방안들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방안들은 아직 당직자들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지만 총선기획단이 구성되면 이 방안들이 실제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역 의원의 기득권 배제방법도 관심사다. 한나라당이 검토하는 현역 의원과 도전자의 1대1 경선구도를 만들거나 정치신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걸림돌은 곳곳에 산재해 있다. 공천을 결정 과정에서의 당내 계파 간 갈등이 그것이다. 또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 협상도 당내 갈등을 촉발하는 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공천혁명 통해 MB정권 심판"

한명숙 민주당통합 대표

민주당통합 신임 대표로 선출된 한명숙 대표는 15일 전당대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교체를 해달라는 열망이 극에 달한 것 같다"며 "한나라당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리더십이 누구였냐를 생각할 것 같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당대표 경선 과정에 돈봉투 파문이 불거졌는데.

▲민주당의 돈봉투와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사실관계가 하나도 밝혀진 게 없다. 사실관계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선거 승리의 결정적 요인.

▲이명박 정권 4년 하에서 모든 국민이 불행을 느끼고 너무나 힘들어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에게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교체를 해달라는 열망이 극에 달했고 80만명의 자발적인 선거

인단이 참여했다.

-향후 인적쇄신 방안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두 가지 요인이 필요하다. 첫째는 공천혁명을 확실해 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야 한다. 두 번째는 승리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내야 한다.

공천혁명은 반드시 하겠다.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고 완전국민경선으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릴 것이다.

-통합진보당과 선거연대의 원칙이 있다면 말해달라.

▲가치중심적인 정책연대를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이다.

-호남과 수도권 공천은 어떻게 되나. 기존 세력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광역단위, 시도 단위의 자체 공천이 이뤄지고 있다. 이것이 나중엔 후보 간에도 가능하리라 본다. 그러므로 중앙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도 자체적으로 공천을 해내는 것도 존중하려고 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세계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은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계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계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계스타·세계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삼일로점(합동점) 상일로 입구: 022276-0567-9 강남점(강남고교역) 입구: 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약) 입: 02733-0220 송파점(선촌역 2번 출구): 02419-3388 경기 안양점(구,사민회관) 입: 032421-2288 부평점(부평역) 입: 032617-5110 수원점(남문) 입: 031246-5110 의정부점(모천로터리) 흥국생명 입: 031821-6655 안양점(백산로2001) 아울렛 입: 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입: 031668-5110 용인점(용인내거리) 입: 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 입: 031378-4183 부천점(롯데백화점) 입: 032029-4400 남양주점(평내 로얄파크) 입: 0718829-9803 부산 서면점(서면로터리) 입: 051818-8800 서면점(삼익) 입: 051256-7200 울산 울진점(울진로터리) 입: 05208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입: 055291-0100 진주점(중앙로터리) 입: 055745-9870 대구 동문점(동문네거리) 입: 053425-4440 삼척점(삼척네거리) 입: 053426-1511 남일점(남일로) 입: 053425-7576 경북 포항점(해곡로) 입: 054044-5110 인천동점(동구) 입: 054659-2288 광주 광주점(인도동) 입: 052225-5110 광주점(백담동) 입: 052659-4477 전남 순천시점(순천시) 지리산점(지리산) 입: 061705-6945 전북 전주점(전북로터리) 입: 063252-5722 울산점(대왕동) 입: 053446-7188 익산점(익산로터리) 입: 063638-6600 남원점(남원로터리) 입: 063632-3626 대전 대전점(도심) 입: 042254-5110 대전점(충촌로터리) 입: 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입: 042255-6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입: 041553-2888 광주점(광주로터리) 입: 041852-5110 충북 천주점(천주교구) 입: 042254-5110 대전점(충촌로터리) 입: 043652-1414 강원 강릉점(옥천로터리) 입: 033647-0588 충청점(팔호광장) 입: 033253-5110 제주 제주점(영등포) 입: 064753-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상당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계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국제품질 인증 ISO 9001인증, 국제의료기기인증 ISO 13485인증, CE 0120 인증, 유럽공통체 CE마크 인증, 의료기기 제조업체

■ 광주 구도심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1225-5110 ■ 광주 북문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1651-4477 ■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1752-8845